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이슈브리프

신북방정책 추진 경과와 시사점

최근 해외 은행들의 세대별 채널 운영 동향

북한포커스

북한 건설산업 현황 및 전망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KDB산업은행
미래전략연구소

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신북방정책 추진 경과와 시사점 ····· 1

최근 해외 은행들의 세대별 채널 운영 동향 ····· 4

북한포커스

북한 건설산업 현황 및 전망 ····· 7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 ····· 9

신북방정책 추진 경과와 시사점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강 명 구 (mgk101@kdb.co.kr)

◆ 신북방정책은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연계성 높여 역내 경제발전 증진 및 역외지역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,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

◆ 신북방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'북방경제협력위원회(이하, 북방위)'를 설립하고, 6차례 북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목표 및 과제 설정, 실적 점검

◆ '20년에는 러시아 극동지역에만 적용되던 9-Bridge 전략을 중앙아시아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교, 금융, 연구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

□ **'신북방정책'은 '17.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*(EEF, Eastern Economic Forum)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로 대외에 천명**

*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와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'15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개최. 동 포럼은 매년 9월 초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며, 한국은 '16년부터 매년 참석

○ 신북방정책은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연계성 높여 역내 경제발전 증진 및 역외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이 목표

- 북방지역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, 물류, 에너지 등 인프라구축 협력

○ 나아가, 신북방정책 실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 구현 추진

- 북방국가들과 경제·외교·안보 협력을 확대·강화하고, 유라시아 경제통합 및 개방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에 북한의 참여 유도

○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등 북방지역 정상과 회담을 개최하고 신북방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등 각종 MOU 체결

- '17.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, '17.12월 중국 방문, '19.4월 중앙아시아 3국* 국빈 방문 등

*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

- '20.9월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예정

□ 신북방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'북방경제협력위원회'를 설립하고, 북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신북방정책의 방향 설정

○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일관성 있고 연계성 있는 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이며, 대내외 소통·협력창구인 '북방경제협력위원회(이하, 북방위)' 설립('17.6.26일)

- 위원장은 권구훈, 당연직 정부위원은 기재부·외교부·통일부·산자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(간사)으로 구성
- 상설기구로 신북방지원단을 두고 있으며, 청와대 통상비서관을 단장, 기재부 국장을 부단장으로 14개 부처에서 파견된 30여명이 지원단을 구성
- 신북방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과 세부전략 등 수립 과정에서 정책 조언을 얻기 위해 민간위원(위원장 포함) 20명 위촉

○ 북방위 설립 이후 '17.12.7일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이래 6차례의 전체회의 개최

- 북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협력과제 발굴 및 로드맵 작성, 신북방정책 이행 및 성과 점검, 남북통일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마련 등을 논의
- 특히, 2차 회의에서는 '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' 건설을 위해 9-Bridge*의 한계점을 보완하고, 북방지역 전체와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목표와 과제를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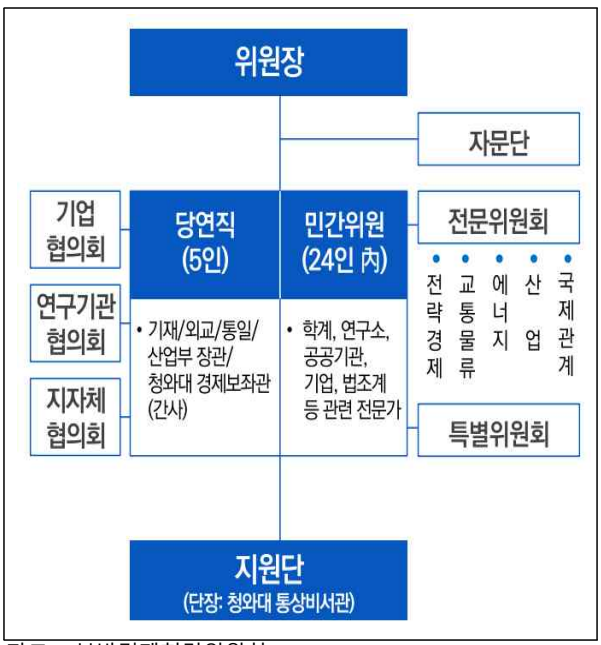
* 극동러시아에서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으로 조선, 항만, 북극항로(NSR), 가스, 철도, 전력, 산업단지(일자리), 농업, 수산업 등의 9개 분야를 중심의 한·러 협력사업

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체회의 내용

	회의 내용
1차 회의 ('17.12.7일)	- 9-Bridge 협력과제 발굴 및 '18.4월까지 북방경제협력 로드맵 마련
2차 회의 ('18.6.18일)	- 러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에 집중되어 있는 9-Bridge 한계점 보완 - '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' 건설을 위해 북방지역 전체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목표와 과제 수립
3차 회의 ('18.12.12일)	- 신북방정책 관련 과제 추진 현황 및 각종 목표 점검
4차 회의 ('19.3.27일)	- 對북방지역 실질적인 협력 강화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
5차 회의 ('19.6.26일)	- 악화되는 국제무역환경에서 북방 신시장 개척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
6차 회의 ('19.11.13일)	-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남북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북방국가와 경제협력 강화

자료 : 북방경제협력위원회

북방경제협력위원회 조직도



자료 : 북방경제협력위원회

□ '20년이 북방지역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·외교 협력 확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외교, 금융, 연구 등 다방면의 노력 필요

○ 정부는 북방국가와의 FTA를 조기 체결, 기초기술협력체제 등 장기적 성과 창출의 기틀 조성

- 러시아와는 한·러 경협을 다각화 및 FTA 조기 타결, 중앙아시아와는 양자간 FTA 공동연구 착수 및 경제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 교역 확대* 기반 마련

  *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는 '19년 220억달러인 교역을 500억달러로, 對중앙아시아 3개국과의 교역 목표를 '18년(43억달러)에서 '23년 100억달러로 상향 설정

- 러시아의 원천기술과 우리의 ICT·응용기술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'혁신플랫폼'* 구축

  * 한·러 혁신센터(생산기술연구원 산하) 신설을 추진해 ① 기술상용화를 위한 R&D사업 추진, ② 스타트업 공동 생태계 조성 ③ 러시아 수입대체 산업(20개)에 중소기업 시장진출 지원

- 한·러 및 한·몽 수교 30년으로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캘린더에 맞춰 국가별 협력 아젠다 개발

  ·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수교 30주년 행사는 어려울 전망이나, '20.9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'동방경제포럼'에서 정상회담 개최 예정

○ 한국기업들의 북방지역 진출 증가에 대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필요

- 러시아 극동지역에만 한정되던 9-Bridge 전략이 중앙아시아까지 확대되어, 4억 달러의 한·러 소부장(소재·부품·장비) 공동투자펀드 등 기업지원 계획 구체화
- 정부가 관련기업* 협의체를 설립하여 철도·도로·플랜트 사업을 발굴하고 있어, 이에 따른 금융 수요도 증가 전망

  *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(KIND)와 러시아 직접투자펀드(RDIF)

○ 다양한 관련 연구기관들은 러시아 및 신북방국가들의 국가발전정책 및 국가간 연계 전략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선제적인 사업 발굴 지원

- 러시아의 '신동방정책', '에너지전략 2035', 카자흐스탄의 '누를리 졸' 등 북방국가의 산업육성정책 연구를 통한 협력방안 모색
- 현재 중국은 러시아의 북극LNG 1, 북극LNG 3 등 에너지부문, 연해주 농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

최근 해외 은행들의 세대별 채널 운영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윤 경 수 (yksoo@kdb.co.kr)

◆ 최근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대별로 은행 채널의 선호도에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어, 해외 은행들은 신세대 중심으로 채널 운영에 변화를 추구

◆ 향후 은행들은 신세대 성장에 따라 대면 채널은 축소, 스마트화하는 한편 비대면 채널은 서비스 다양화, 편의성 제고로 대응할 전망

□ 최근 디지털 기기 확산, 이에 따른 신세대(Z 및 밀레니얼)의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인해 세대별로 은행 채널의 선호도, 이용방식에 있어 차이점이 부각

○ (Z세대) '96~'10년 출생 세대로 전체 세대 중 모바일 기기 보유율이 가장 높고, TV 등 단방향적 매체보다 유튜브,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큰 편*

*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, 미국 Z세대의 96%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, 하루에 68개의 소셜미디어 영상을 소비(13~17세 청소년 기준)

- 특히, TV, 인터넷, 모바일 순으로 이어지는 밀레니얼세대의 매체 경험과 달리 모바일 시장의 성숙기에 출현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모바일 의존도가 높음

○ (밀레니얼세대) '81~'95년 출생 세대로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* 빈도가 높고 디지털 기기에 친숙하기 때문에 상당수 은행업무를 스스로 처리하기를 희망

* Economist紙(2019.5.4)에 따르면, 미국 밀레니얼세대의 85%가 모바일뱅킹을 사용하며 동 세대 절반은 일주일에 한번 Zelle, Venmo와 같은 p2p 결제시스템을 사용

○ (X세대) '65~'80년 출생 세대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규모 거래는 지점과 같은 대면 채널에서, 발생 빈도가 높은 소액 거래는 비대면 채널에서 처리하는 경향

○ (베이비부머세대) '45~'64년 출생 세대로 금융사고 우려 등으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모바일 채널보다는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거래를 선호

세대별 스마트폰 보급률 및 최선호 채널 비중

(단위 : %)

세대	연령범위	스마트폰 보급률	최선호 채널 비중				
			모바일	온라인	ATM	지점	기타
Z세대	'96~'10년	96	-				
밀레니얼세대	'81~'95년	92	31	17	15	21	11
X세대	'65~'80년	85	17	34	12	26	7
베이비부머세대	'45~'64년	67	6	34	11	37	8

주 : 미국 기준, 기타는 이메일, 우편, 전화 등
자료 : Business Insider Intelligence, Salesforce

□ 해외 은행들은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해 신세대를 중심으로 채널 운영에 변화를 추구

○ (기존 채널 활용도 제고) 지점의 디지털화, 챗봇 서비스 제공, 부모와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고객 접점 확대 노력

- (지점의 디지털화) Bank of America는 무인점포인 'Advanced Center'를 운영 중이며 동 점포의 경우 통상적인 업무는 카드가 필요없는 고기능 ATM으로, 모기지대출 등 상대적으로 복잡한 업무는 비디오 회의실에서 영상 상담 제공
- (챗봇 서비스 제공) Capital One*은 인공지능(AI) 기반의 챗봇 Eno를 모바일 앱, 웹사이트, SMS 등 비대면 채널 전반에 사용하여 계좌 개설, 거래 내역, 청구서 지불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고객 맞춤형 응답을 제공

* 미국 8위 은행('19년 기본자본 기준)으로, 신용카드, 자동차대출 등 소매금융 위주로 사업 영위

- (부모와 연계성 강화) Wells Fargo는 모바일앱 내에 Z세대 자녀가 부모와 저축 목표액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장려하는 'Greenlight' 기능을 신설하였고, Capital One은 Z세대 자녀의 저축계좌를 부모 계좌에 연동하여 편의성 제고

○ (신규 채널 활용) 소셜미디어를 직접적인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매체* 역할뿐만 아니라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서비스에 반영하는 통로로 이용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충성도(loyalty) 확보 추구

* 미국 주요 은행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(Facebook, Instagram, Twitter) : BoA 2.8백만, 0.1백만, 0.5백만, Wells Fargo 1.1백만, 0.1백만, 0.3백만, Chase Bank 3.8백만, 0.2백만, 0.4백만

- Bank of America는 다수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동일한 콘텐츠를 게시하는 대신 각 잠재고객에 맞는 영상과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의 접속을 유도
- Wells Fargo는 밀레니얼세대를 겨냥하여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유용한 금융 정보, 행사 계획, 흥미 있는 읽을거리 등을 제공하는 한편, 트위터에 헬프데스크(Ask Wells Fargo)를 개설함으로써 서비스 불만사항이나 질문에 응답

○ (온라인은행 설립) 일부 은행들은 기존 채널의 디지털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특정 세대 고객 유치를 목표로 별도의 온라인은행을 설립하기도 함

- BNP Paribas는 '13년 유럽지역의 20~30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Hello Bank*를, 싱가포르 UoB(United Overseas Bank)는 '19년 아시아지역 밀레니얼 세대 고객 확보를 위해 TMRW(Tomorrow)**를 출범

* 온라인으로 휴대폰 번호나 QR코드를 통한 송금, 재무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여 편의성 제고

** 신세대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모바일앱 내에 저축 게임을 탑재하고, 지출 및 저축 패턴을 추적하여 자금관리에 대한 조언도 제공

□ 해외 은행들은 고령자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유지에도 관심

○ 고령자에게 디지털뱅킹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채널의 사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, 지점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이동 점포를 제공

- Capital One은 IT 기업과 협력*을 통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모바일뱅킹 사용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, Barclays는 디지털뱅킹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, 전문가들을 지점, 지역 커뮤니티 등에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

* Grovo(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학습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미국 IT 기업)와 협력하여 모바일 장치를 통한 수표 입금, 청구서 지불 등의 영상 시리즈 제작

- RBS는 근거리 지점이 부재한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 22개의 이동식 점포를 운영 중이며 동 점포는 매주 지방 요양원 등 원격지를 순회

□ 향후 은행들은 신세대의 성장에 따라 대면 채널은 축소 및 스마트화, 비대면 채널은 서비스 다양화, 편의성 제고로 대응 전망

○ 모바일 거래 증가세*, 신세대 인구 비중** 등 감안시 대부분의 은행들은 대면 채널보다 비대면 채널 성장에 주력하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

- FDIC(미국 연방 예금보험공사) 자료에 의하면, 미국 상업은행 지점은 '08년 83,040개에서 '18년 78,014개로 10년간 6.1% 감소

* 미국 주요 은행들의 모바일뱅킹 사용자수(백만명) : BoA 32.9('16년)→38.3('19년), JP Morgan Chase 26.5('16년)→37.3('19년), Wells Fargo 19.6('16년)→24.4('19년)

** Financial Times紙(2018.6.6)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밀레니얼세대의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('18년 기준), '20년에는 동 세대가 세계 노동인력 중 가장 많은 비중(35%)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

○ 또한, 예금·대출 위주의 기존 온라인 플랫폼에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재무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서비스 구현 노력

- Goldman Sach는 '18년 Clarity Money* 인수 후 이를 소액예금 및 개인대출 위주로 운영하던 동사 온라인뱅킹 플랫폼 Marcus에 연계한 바 있으며,

* 인공지능(AI) 기반 개인 재무관리 앱으로 지출 관리, 카드 추천 등의 기능을 Marcus에 연계

- 자산관리회사인 United Capital 인수('19년)를 기반으로 소액투자자 대상 로보 어드바이저를 개발 중이며, 향후 이를 Marcus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

○ 대면 채널의 경우 감축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, 스마트 점포화, 계열사와의 복합점포화 등을 통해 경비 절감, 업무 효율화 등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

- 실례로, 일본 Mizuho 금융그룹은 '21년까지 90개 지점을 폐쇄하고, 고기능 ATM 확충, 지점의 Paperless화 추진 등으로 지점의 디지털화를 진행할 예정
- 일본 금융그룹 MUFG는 중장기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'18년부터 향후 6년간 지점을 20% 감축하는 한편, 잔여 지점 절반을 복합점포화*할 계획을 밝힘

* 그룹 계열사와 공동으로 입점하는 형태로 계열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 가능

북한 건설산업 현황 및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
김 경 원 (mind@kdb.co.kr)

◆ 북한 건설산업은 김정은 집권기('11~'18년) 연평균 3.2% 성장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주요 산업이나, '16년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

◆ 건설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외화획득용 대규모 관광지와 자립경제 기반 민생인프라 위주로 대형 건설사업을 추진

◆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을 통한 외화획득에 어려움이 있으며, 이에 건축자재 국산화 등 자력갱생을 위한 건설역량 확충에 주력할 전망

□ 북한 건설산업은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주요 산업이나, '16년 UN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2년간 마이너스 성장 시현

○ 김정은 집권기('11~'18년) 북한의 건설산업은 연평균 3.2% 성장하며, 동기 국내총생산 증가율(연평균 1.5%)을 크게 상회

- '18년 기준 북한 건설산업의 총생산액은 3조 1,738억원 수준으로, 국내총생산의 8.9%를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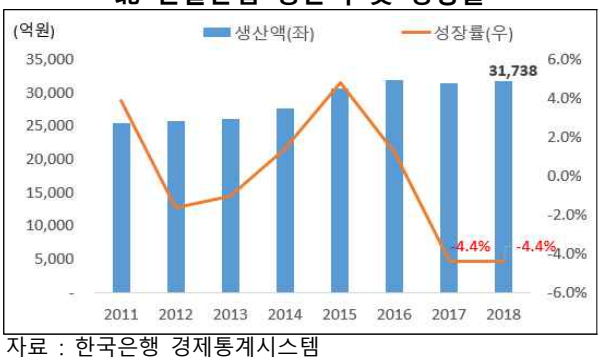
○ 건설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로 인적자원에 의존하고 있어 여타산업 대비 종사 인원이 많은 것이 특징

- 건설성, 인민무력부, 청년동맹, 인민보안성 등 당정군의 여러 부처도 건설 관련 자체 조직을 보유*

* 인민무력부 산하 도로국(약 10만명), 청년동맹 산하 청년돌격대(약 40만명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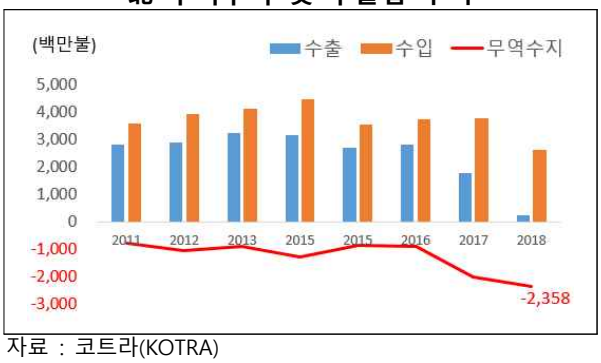
○ '16년 이후 경제관련 UN 대북제재가 강화되며, 대규모 무역적자 발생에 따른 구매력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산업은 2년 연속('17~'18년) △4.4% 성장

北 건설산업 생산액 및 성장률



자료 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北 무역수지 및 수출입 추이



자료 : 코트라(KOTRA)

□ 북한은 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 분야와 내부 자립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분야를 위주로 대형 건설프로젝트 운영하여 활로를 모색 중

○ 삼지연 지구('19.12월 준공), 양덕온천관광지구('19.11월 준공),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('20.4월 완공예정) 등 대규모 관광지를 건설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외화수입 창출을 도모

- 과거 사회주의 폐쇄정책에 따라 엄격히 통제하였던 관광을 김정은 집권이후 산업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외자유치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

○ 중평남새온실지구('19.12월 준공), 혜산시멘트공장('19.11월 개건), 단천수력발전소(건설중) 등 내부 민생관련 인프라 건설을 통해 자력갱생 추진

- 식량·건축자재·에너지 자체생산 인프라를 확충하여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, 제재로 인한 경제난을 내부역량으로 해결하려고 노력

□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관광지를 통한 외화 창출에 어려움이 있으며, 이에 자립경제 관련 건설역량 강화에 주력할 전망

○ 북한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'20.1.22부터 완전한 치료법이 개발될 때까지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조치를 발표('20.1.27, 김형훈 보건성 부상)

-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건설한 양덕온천관광지구의 관광시설을 '20.2월 폐쇄

○ '20년 북한 건설산업은 외화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적 건설역량을 보강*하여, 자립생산기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

- 건축자재 국산화와 시공의 기계화가 강조되어 건설현장에도 도입되고 있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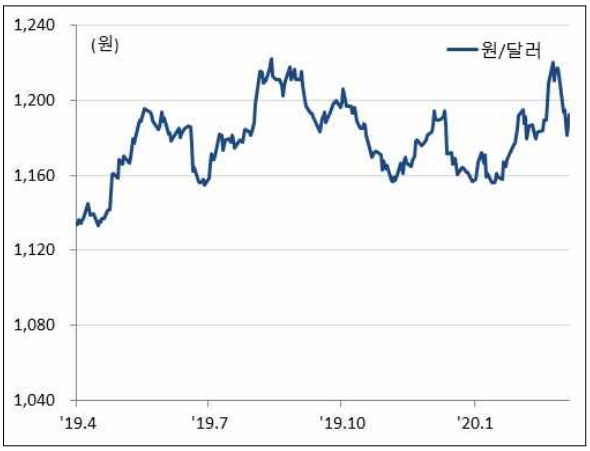
* 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발표('20.1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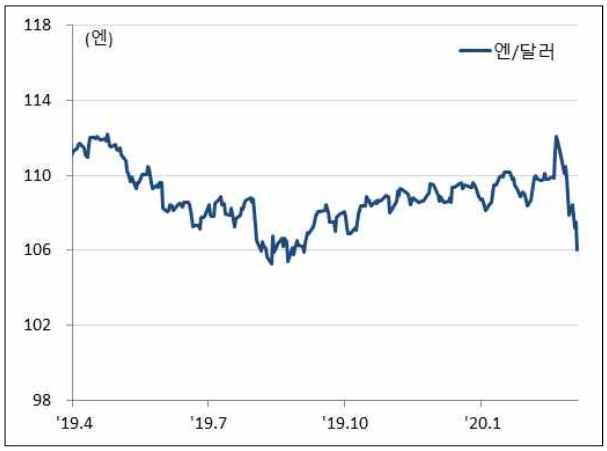
**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('20.1월), "2019년 4/4분기 북한 건설·개발 동향"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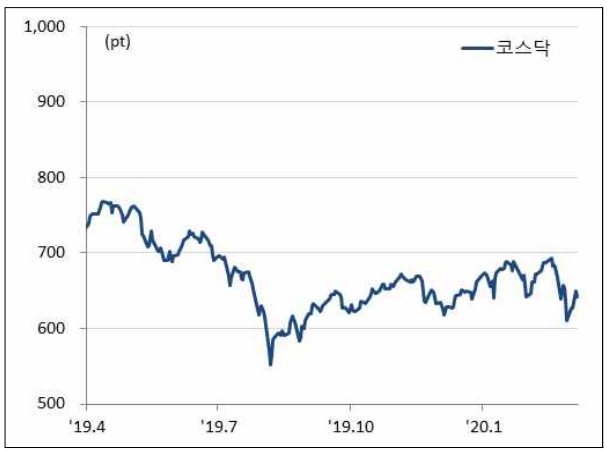
금 리 국고채3년 1.078% (2.6bp ⬇), 신용스프레드 41.8bp (0.9bp ⬆)

환 율 원/달러 1,192.3원 (21.4원 ⬇), 엔/달러 106.01엔 (1.88엔 ⬇)





주 가 코스피 2,040.22pt (2.68% ⬆), 코스닥지수 642.72pt (5.24% ⬆)



* ( )는 전주대비 상승↑, 하락↓, 신용스프레드와 엔/달러는 목요일 종가 기준

주간 KDB리포트
Weekly KDB Report

제869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문의 787.7826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